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446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13,22-30)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향,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연중제21주일(루카 13,22-30)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 찬미 예수님

유럽인들이 콜롬비아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보잘것없는 도구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백인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무를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큰 도끼를 하나 보내 주었다. 다음 해에 원주민들이 이 도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러 그 마을을 찾았다. 그들이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그들을 에워쌌다. 추장은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보내준 도끼로 우리는 더 많은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인디언들은 빨리 일을 끝내고 자유로운 시간을 더 갖게 된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백인들은 자기네처럼 인디언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처럼 백인들은 소유와 집착이 자신들의 삶의 행복임을 믿고 있지만, 인디언들은 진정 인생을 즐길 줄 알고 있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며,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다. 이유는 그들이 주님과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밖에 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인과 친분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가르침을 들었다'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관계 즉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관계를 강조하신다. 즉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즉 미사에 참여하고, 모든 기도문을 바치며 신심 생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은 힘과 에너지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끔 본당 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보다는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한다. 그 사람은 정말 절박한 심정일터인데, 나의 마음은 그의 절박함보다는 '내가 움직여야 하고, 내가 그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는 마음 등이 더 강하게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즉시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쉽지만 그 믿음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된다.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기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는 자식에게서 완성된다는 집착, 자신들의 가정만이 최우선이라는 집착, 나의 편의와 나의 안락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집착 등등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진정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이웃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수원교구 8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 우리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공동체는 절실한 기도와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새 성전 이전을 이루어 냅시다.
- ※ 8월 15일 (목)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전례적으로 미사참례 의무축일인 이 날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쁘게 맞이하면서 성모님의 겸손과 사랑을 느끼며 뜻 깊게 보냅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판관기 17-21장

◆ 판관기에 대한 설명과 성서문제
판관기의 부록부분(17-21장)은 두 개의 설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1. 첫 번째 이야기(17-18장)는 단 지파에 대한 것으로, 이는 판관기 본론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기에 연결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판관17,1-18,31을 읽고 다음 빈 칸에 맞는 답을 넣으시오.

그리하여 단의 자손들은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에게서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의 이름을 따서 ()이라고 지었다.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의 자손들은 그 ()을 모셔 놓았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이 유배를 갈 때까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탄과 그의 자손들이 단 지파의 ()로 일하였다. 그들은 ()이 실로에 있는 내내, 미카가 만든 ()을 그곳에 두고 섬겼다.

2. 19장에서는 벤아민 지파의 만행을 제시함으로써 다음 책인 사무엘기에서 언급될 왕정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즉 이를 통해 지파 동맹체제의 종말을 제시하고 이어 '왕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패턴이 도입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판관 19장을 읽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한 레위인 이 소실과 종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헬을 떠나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기브아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이 기브아에는 어느 지파가 살고 있었는가? ()

- ① 벤아민 지파
- ② 에프라임 지파
- ③ 단 지파
- ④ 므나세 지파

3. 마지막 부분(21장 25절)에서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고 함으로써 사무엘기, 열왕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왕정 전승을 준비하고 있다.

판관 21장을 읽고 다음 빈 칸에 맞는 답을 넣으시오.

이스라엘 민족들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씨족에 따라 그곳을 떠나 () 저마다 그곳을 떠나 자기 상속지로 간 것이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에 보이는 대로 하였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판관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하나의 문장을 고른다면 '야훼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야훼께서 그들의 하느님(왕) 이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야훼가 참 왕이고 인간 왕은 야훼의 뜻을 실천하는 자, 야훼의 뜻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살피는 야훼의 종입니다.

이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실현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참된 통치자라면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실현하여 세상에 구원이 이르도록 하는 종으로서의 역할이지 결코 다른 인간을 지배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권력, 능력, 모든 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하느님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정치인뿐 아니라 어떤 단체의 책임자,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에게 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혹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위치, 권위를 과시하고 힘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내적 욕구가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지위나 재능, 또는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는 처지를 이용하여 그를 지배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 안에 또는 마음 깊이에 자리한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에 대해 잠시 묵상하고 서로 나눠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정수
정원
현곡
시작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하느님 백 성 자 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임할 무 아

종 - 기 하 고 공 사 하 자 세 상 모 두에 게

마 음 보 - 아 기 도 하 고 함께 나가자 전 곡 으 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